

부활 제 3 주일

기도서 P. 281

제 1독서 (사도 2, 14, 22-28절)

제 2독서 (베드로전 1, 17-21절)

복 음 (루 가 24, 13-35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산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

“동물 세례의 신학적 고찰”

왕 수 해 신부



환장(換腸)한다고 합니다. 풀어말하면 「정상적인 정
신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換心
腸)입니다. 결국 장자가 뒤집히고, 장자가 뒤집히니 눈알
이 뒤집히고, 눈알이 뒤집히니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제일
맛없는 음식이 되고, 제일 맛있는 것이 제일 맛있는 음식
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환장한
사람들이 물레 동을 맛보았던 모양입니다. 환장했으니
그 맛이야말로 산해진미요, 입을 찹찹 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좋은 음식을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장차 음식
을 마련할 어머니들이요. 이 나라의 귀여운 딸들에게 맛
을 보이자! 맛을 아직 모를것이니 입속에 쑤셔라도 먹
여 맛을 들이고, 너무나 좋은 음식이니 화장품 대신에
발라서 더 예뻐지게 하자! 아니다 그 좋은 음식을 어찌
먹고 바르는데만 쓸 수 있겠는가? 가슴에 안겨서 고이
간직하고 그 별세에 취하도록 하자!”

눈알이 뒤집힌 사람들이 그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나
니 너무도 기쁘고, 꽃다운 아가씨들이 쟁그리고 울먹이
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랑에 감동되어 “꿀어 안고는 부족
하니 입술을 물어 뜯어 주어 우리의 사랑을 만찬하에 보
여주자! 우리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마음을 온세상에 알
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자” 장이 뒤집
힌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이었으리라 상상하고도 남습니
다.

더구나 이러한 사랑의 똥 만찬이 사순절에 있었다 하
니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어 주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들은 세례
자 요한보다 더 달콤해서 부활을 준비시키기 위해 물과
오줌으로는 안되고 탁탁한 똥물을 입을 닦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결손의 미덕을 준비 시켰으니, 오늘의
요한세자 20세기의 세례자 요한이 대거 탄생했습니다.
박수 칠시다. 짹짹. 똥물은 놀음!

그러니 의미 심장한 동물 세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주님
이 그 치욕속에, 그 수모속에 민중경찰이 방관하고 있는
데서 힘없이 당하는 여공들과 함께 제였으리라 믿습니다
하소연할 곳 없는 그 상황속에 힘없는 자에게 온정을 쏟
으신 주님은 그들과 같이 똥물을 맛보았으리라 생각됩
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처럼 우리의 육안으
로 알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신앙으로 볼 때 보여지는 분이며, 기도속에, 형제
들 마음과 얼굴속에, 오늘 우리에게는 인분세례를 받았던
여직공들 모습속에, 우리 주님을 발견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형제들에
게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장수천주교회 주임신부)

□ 환영! 파티마 성모 □

파티마 꼬미시움과

파티마 성전

김 후 만(비오)

“나 어디로 조차 福이 있어 주님의 모친이 내게 임하였
는고-? 「루가 1; 43」 인류의 平和를 위해 축성된 파티
마 聖母님이 우리 고향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문득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
다. 나는 레지오 마리에 까페나를 염송할 때마다 오늘날
클 온세상 사람들이 聖母님을 福된 女人이라 일컫는 때
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하였다.

우리나라에 레지오 마리아가 들어온지도 어언, 금년들
어 25주년을 맞는다. 바로 이듬해에 우리 교구에 전래된
레지오 마리에 명칭을「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이라 이
름하였으니 오늘에와서 돌이켜 보면 파티마 모후라 이름
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이라 생각된다.

1977년(작년)은 파티마 성모 발현 60주년을 맞는 해로
써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거국적인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바 있고, 우리 교구 파티마 꼬미씨움을 주관
하는 성당에서는 파티마 성모님께 60주년 기념성당을 봉
헌하기 위하여 목주의 기도 10만번을 봉헌한바 있었다.

한치의 땅도, 한푼의 원조도, 쌓아둔 재산도 없이 오늘의
성전을 이룩하게 된것은 오로지 성모님께 대한 信心에서
였다. 공교롭게도 파티마 성전 봉헌식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남북 平和를 위해 오시는 파티마 성모님을 환영하
게 되고 보니 그냥 우연으로 돌리기에에는 별로 설익지 않
다. 레지오 마리에 지도 신부님의 말씀 한마디가 재미있
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뜻은 두가지
가 있으니 그 하나는 당신께 봉헌된 파티마 성전을 보고
파서.....”라고-

친애하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를
아껴 주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
모님께 로사리오 100만번 봉헌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
까? “이제부터 나를 福된 女人이라 일컬으리라” <루가
1; 48>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움 단장>

숲 정 이 산책





우리의 병원 『전주 성모병원』

1977년도의 이모저모

김 영 일 신 부

제가 성모병원을 전담한지 1년 10개월, 이렇게 늦게사 인사드림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946년 시약소로 문을 연 이래 32년이 지났고, 30년이 되던 해에는 보다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전담 원장신부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나름대로 보고 느낀점과 77년도의 성모병원 모습을 소개해 봅니다. 오직 더 나은 발전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병원은 16,027명의 외래환자, 912명의 입원환자(연 입원일수 9,087일)를 돌보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에서는 1천3백83만원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제 한 사람으로 고통중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것 자들에게는 매일같이 봉성체(奉聖體)도 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병원은 건물이 구식이고 현대 시설을 완비하지는 못했지만, 종합병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산실, 수술실 뿐만 아니라, 피가 모자라 생명이 위독할때 피 때문에 애로를 당하지 않을 혈액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키우기 어려운 조산아를 실수없이 잘 기를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의 개설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담당한 의사선생님들이 모두 전문입니다.

저는 「천천 봉사」를 신조(motto)로 삼고 최선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교우분은 220명, 신부님 32명, 수녀님 5명이었습니다. 예수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성모병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자들만 이용한다 해도 다른 병원 못지않게 잘 운영될 것이다”고 하던말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자가 21,098명인데 우리 병원을 이용하신 분은 220명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거주 신자의 1.04%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병원에 대한 어떤 확으로 안오고 계신다면 저에게 채찍을 주십시오. 항상 탈게받고, 또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병원은 신자들께서 본당 신부님 싸인을 맡아 오시면 20% 할인해드립니다. (수녀님은 50%할인, 신부님은 전액 무료) 또한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성모병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병원, 우리의 병원임을 잊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병원을 책임진 사제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것이고, 완쾌의 길도 빠를 것입니다.

우리의 병원, 성모병원을 항상 아껴주세요.

(성모병원 원장신부)

전화 ㉠ 2523. 5290. 7371

내과 과장	내과 전문의	염광섭(의학박사)
외과 과장	외과 전문의	장양욱
소아과 과장	소아과 전문의	김정승(아가비도)
부인과 과장	산부인과 전문의	허영희,
응급실 담당의사	김현곤, 병실담당 의사	김학현

(환) 파티마 평화의 성모 순례 (영)

일시 : 4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 파티마 새성당(전주시 효자동)

주 관 :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전 주)
 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중 앙)
 치명자의 모후 " (이 리)
 루르드의 성모 " (문울동)
 바다의 별 " (월명동)
 그리스당의 도움 " (팔 마)
 칼렐의 모후 " (남 원)
 평화의 모후 " (김 제)
 그리스도 왕의 모후 " (함 열)
 병인의 나움 " (무 주)
 사도의 모후 " (정 읍)

환영식 : 1. 파티마 성당 봉헌 예절
 2. 파티마 성당 봉헌 미사
 3. 파티마 평화의 성모 대관식
 4. 예물 증정(로사리오 기도 100만번)
 5. 화환 증정(꾸리아 단위)
 6. 환영사(김재덕 주교)
 7. 평화의 성모 마리아(순혜단장)
 8. 까테나(꼬미시움 단장)
 9. 평화의 성모 개인별 참배
 10. 파티마의 성모 봉헌송(합송)
 11. 레지오 단가(오후 1시)

※4월중 꼬미시움 월례회는 환영식 후 파티마 성당에서 있습니다.

□ 사제양성 후원사업 □

“ 짹째기(짹째이) 고무신과 살찐 돼지 ”

김 병 환 신부

따스한 봄벌에 목련 꽃잎이 한층 싱그러wie 보이는 일요일, 신자들이 사순절동안 정성 드려 살찌운 돼지를 가져오는 날이었다.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내 수단자락을 끌더니 한쪽으로 데리고 가셨다.

때가 약간 낡은 치마저고리에 짹째기 고무신을 신은 남루한 차림새의 팔순에 가까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내 두손을 잡으시더니 돼지 한마리를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묵직한 돼지저금통! 무언가 큰 일을 마치셨다는듯한 주름진 얼굴 전체에 맑고 밝은 웃음과 기쁨과 행복에 젖어있는 미소, 비록 짹째기 고무신은 신었어도 심신은 청신해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과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 돼지를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살찌게 하셨을까? 결코 이 할머니는 풍족한 생활의 여분으로 돼지를 키워 오신건 아닐 것이다. 궁한 용돈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아가며 얻은 담배값에서, 귀여운 손자들의 과자값에서 이 돼지를 키워오셨을 것이다. 때가 낡은 치마저고리 대신 새 치마와 새 저고리를 입고 싶으시나 않으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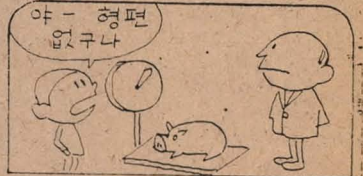
정녕 이 할머니는 짹째기 고무신 대신 새고무신을 신고 싶지나 않으셨는지…… 사제양성을 위해서 이 돼지에 온정성을 다 쏟으셨을 것이다. 한달 두달 동전을 넣으실 때마다 돼지의 얼굴을 필경 본당신부의 얼굴로 보셨을 것이다. 참으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었다. 사제생활 1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뿌듯함이었다. 묵직한 돼지 한마리를 손에든 나는 마치 귀한 보옥이라도 들고 있는듯 두손으로 감싸 쥐었다.

정녕코! 주님을 따르는 양떼만을 생각하는 참 목자가 되어야지……

새 고무신 새 치마 새 저고리 대신 돼지를 살찌운 할머니의 정성에 조금이라도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주는 기쁨과 받은 기쁨인 양감의 인간적 무게를 어깨에 느껴본다. 수북이 쌓인 빨간 돼지들의 시선은 격려와 위로, 평화와 기쁨을 주는것 같았다. 금년 사제양성을 위해 주신 정성에 사제의 한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더욱 도움을 받아야 할 후배 사제들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고 싶다.

(금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십이 (245) 김병우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판매사원 모집 □

당 영업소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최고급 화장용 미용비누를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1. 모집인원 : 약간명
2. 자격 : 중졸이상 활동력 강한여성
3. 대우 : 월 10만원이상
4. 기간 : 78. 4. 13(목)까지
5. 접수장소 : 전주시전동1가 200-1 ☎ ② 8466

모세실업(주) 전주 영업소

★ 양심을 찾자 ★

현대 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아크릴 · 아취 · 실내장치 · 각종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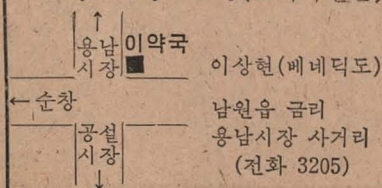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 (야보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 8 5
◎ 감초당 약국 앞

친절, 열가봉사 합니다.

이 약 국 (조제약전문)



□ 직원 채용공고 □

1. 응모 자격 :
 - ①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② 병역을 필한자나 면제 받은자
 - ③ 상고 출신으로 주산, 부기 자격증 소유자.
2. 제출 서류 :
 - ①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병적 확인서 1통
 - ④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신원증명서 1통
 - ⑥ 자격증 사본 각 1통
3. 접수마감 : 1978. 4. 15. 17시
4.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5. 전형일자 : 1978. 4. 17 오전 10시
6. 제출처 : 전주시 중노송동 1가 472-19
노송신용협동조합 (② 4834)



□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한 돼지 저금통을 정성드려 봉헌합니다

1. 축! 군산 월명동 성당 축성(4월 10일<월> 오후 2시)
축! 전주 파티마 성당 축성(4월 14일<금> 오전 11시)
2. 성소주일 행사(4월 16일<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3. 꾸르실료 교구 올드레야(4월 23일<일> 11시-오후 3시, 가톨릭 센터)
4. 사제 피정(4월 17일<월> 오후 4시-21일<금> 가톨릭 센터)

□ 숲정이에 투고할 때에는 반드시 성명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퇴 신부님을 돕는 모임을 갖자는 좋은 투고가 있어도 누가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숲정이에 발송사고가 있습니다. 연락해주세요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봉득
보좌 신부 김진영
사도 회장 이영복

1. 꾸리아 월례회 : 9일, 오후 2시<강당>
 2. 환자 봉성제 : 11일(화) 오후 2시부터
 3.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 13일(목) 오후 2시
 4. 성심부녀회 월례회 : 14일(금) 어머니미사 후
 5. 중·고학생 성가연습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강당)
 6. 성경, 성가집, 기도서 지참하고, 시간을 지켜서 미사에 참석 바랍니다
 7. 다음주(16일) 공식미사 전례담당
복사: 김형택, 장남수 독서: ① 윤팔만 ② 김영춘
해설: 임주택
 8. 청년 합창단 춘계 단합대회 : 4월. 8-9일, 1박 2일
장소: 두주 구천동
- 지난주 봉헌금 : 130,463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지난주일 유회로 재소집 (정부회장, 각 분과위원장
차장, 감사, 고문, 성우회장, 부녀회장 필히 참석
바람)
 2.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김낙완 형제력)
 3.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 매주(목) 저녁미사
후, 인도해 주신분들 열심히 안내 바랍니다
 4. 교리교사 수고하십니다 1명 부족 신청 바람
교리교사 가정방문 : 4월 8일-10일까지(협조 바람)
 5. 오늘 1일교장 : 염규철, 요셉 형제님
다음주 1일교장 : 김화영, 누가 형제님
- 지난주 봉헌금 : 119,38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선교주일 : 공식미사 후, 레지오 마리에 간부회 있음
 2. 반상회 : 5반-11일, 6반-12일, 7반-13일, 8반-14일
 3. 파티마 성당(효자동 낙성) : 오전 11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4월 5일 학생 미화작업
 5. 학생미사 변경 : 토요일+오후 7시 반
- 지난주 봉헌금 : 50,39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신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 내일부터
가. 주일 :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7시 반
나. 평일 : (화·수·목·토) 오후 7시 반, 어린이미사(토) 오후 3시
월요일, 오전 6시-금요일 오전 10시
 3. 신자 가정방문 : 11일과 13일 유아동
 4. 임진각 기도회 : 구두로 예약하신 분은 오늘중으로
표를 구입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소식없는 분은 예약을 취소합니다
출발일시 : 4월 16일 오전 7시
 5. 부활초 구입에 협조하신 분 : 이정은, 박규선, 황원희, 각 5,000원씩, 이주시아, 소귀례, 최순자, 각 4,000원씩, 누갈다희 10,000원, L.M 자비의 모친 5,000원, 백옥님 1,000원, 전창환, 송한혜, 이부녀 최복례, 오정우 각 500원씩, 김메레사 200원, 계 45,700원 부활초 구입하고, 잔액은 부활제대의 장식에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2,690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분당 확인지도 : 4월 11일 오후 2시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부녀회 미레네 순교자 방문 : 4월 24일
 3. 숲정이 신용조합 사무실 완비 : 교형차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미사시간 변경
주일 : 평일 아침 6시 반-6시
주일, 평일 오후 7시-6시 반
 5. 반상회 일정 : 4월 13일-진북 2동 7반, 15일-진북 2동 4반, 17일-서신동 1구 1반, 18일-서신동 2구 1반, 19일-서신동 1구 2반
- 지난주 봉헌금 : 108,95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확대회 : 4월 16일 공식미사 후
(구역장님, 반장님, 공소회장님 사도회 임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2. 신부님 송별 : 영적, 물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창고 및 변소 부속건물은 우리 힘으로
(미납된 신축현금은 조속히 납부 협조합니다)
 4.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요?
예비자 한분씩 인도합니다
◎ 예비자 모집, 교리는 4월 23일부터
 5. 새로 영세한 신자를 중심으로 성서교실 개강
희망자는 신부님께 신청 바람. 선착순 15명
 6. 부활절에 협조해 주신 분
화분 : 최정자(안나), 현복천(요셉)
제대꽃 : 서말가리다 할머니
제대초 : 장윤옥(메레사) 할머니
 7. 아직까지 불 관공 성사를 보지 않는 분을 위해서,
관공성사를 미사 전후에 드리고 계시니 빠짐없이...
- 지난주 봉헌금 : 77,24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보좌 신부 유중홍
사도 회장 유석환

1. 축! 파티마 성당 축성식, 파티마 성모 환영식
14일(금) 오전 11시
 2. 자모회-10시미사 후
 3. 장우회-아침미사 후
 4. 성가정회-월요일 오후 2시 수녀원 성당
 5. 성당의자 신원금금 누계 : 646,500원
 6. 파티마 성당 은인을 구할
(총 30만(+), 계의, 오르간, 감실10만(+), 응접셋트 1조 82,000(+), 제대(+), 식탁가구, 최후만찬 성화 20만(+), 기타)
 7. 영세자 기념사진 : 사무실
※ 파티마 성당 축성시 성미 모금
- 지난주 봉헌금 : 163,055원